

# 충북도, 경제회복 4104억원 추경안 제출

기정예산 대비 7.49% 증액...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정상화 기대  
'충북형 뉴딜사업' 골자... 우리마을·투자유치·시군대표 3개 분야

충북도는 코로나19 시대 이후 뉴딜 시대 선제 대응하고 침체된 경제 정상화와 회복 가속화를 견인할 충북형 뉴딜정책 추진을 위하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북도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104억원(일반회계 4,10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9%를 증액한 규모이다. 4회 추경의 주요 내용인 충북형 뉴딜사업의 핵심은 우리마을 뉴딜사업, 투자유치 뉴딜사업, 시군 대표 뉴딜사업 등 크게 3개 분야로 대표된다.

먼저, 우리마을 뉴딜사업은 마을 구석구석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사업 등을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선택하고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주민 파부에 직접 와 닿는 경기 부양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04억 원을 편성했다.

투자유치 뉴딜사업으로는 도내 경제 활성화에 자양분이 될 기업 유치와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100억 원을 편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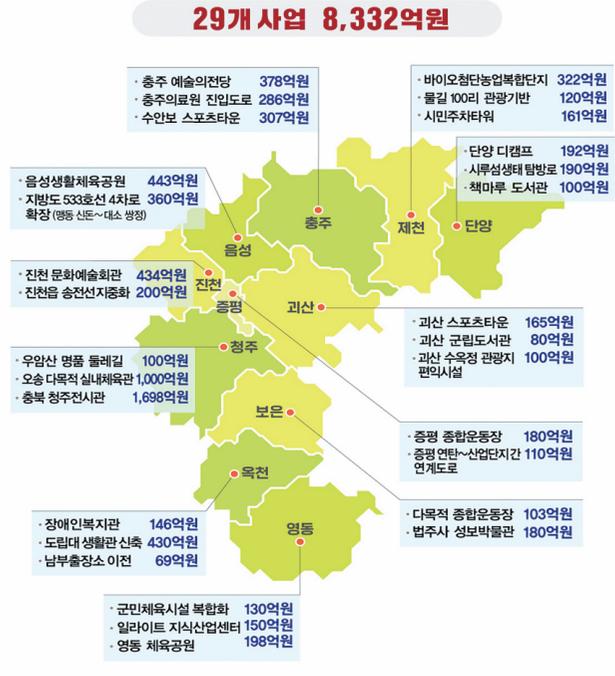
시·군 대표 뉴딜사업은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경기부양·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11개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사업을 2~3개 선정해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192억 원을 편성했다.

충북도는 그간 1~3단계 경제회복 조치로 코로나19 사태에 많은 피해를 입은 도민에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도민 생계 안정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이번 4단계 경제회복 조치는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경기 부양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박중근 정책기획관은 "그간 충북도의 1~3단계 경제회복 조치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도민에 생계를 지원하는 직접적이고 1차원적인 경기 부양책이었다면, 금번 4회 추경의 대표사업인 충북형 뉴딜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제회복 가속화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들이 튼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충북형 뉴딜사업 3호 '시군 대표 뉴딜사업'



# 충북도내 고1, 2학기부터 '무상교육' 실시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고교 전 학년 적용... 1만1996명 혜택받아

충북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받게 됐다.

지난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올해 1학기부터 시행중인 2~3학년은 고1까지 더해 올해 2학기 개시일인 9월부터는 도내 모든 고등학생이 교육비를 면제받는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무상급식에 다음해에는 교육비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도내 고등학생들은 학업과 관련한 비용 대부분을 면제 받게 된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당초 다음해 1학기 예정이던 고1 무상교육을 6개월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내 공립고 61곳·사립고 21곳·방송통신고 2곳 등 84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만 3300명 중 1만 1996명이 2학기 개시일인 9월부터 무상교육을 받는다. 이미 교육비를 면제받고 있는 특성화고 장학금 수급 학생, 저소득층 지원 대상 학생 등 1304명은 제외된다.

무상교육 조기시행 배경에 대해 김

교육감은 "갑작스런 코로나19 여파로 개학 연기 및 원격수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1/4분기(3월 1일~5월 말) 교육비를 지불한 고1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2/4분기 교육비 고지서를 받는 부당성에 따른 조치"라고 답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충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8월중 제출해 9월 2학기부터 이상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소요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 동안 사용하지 못한 국외연수, 현장체험학습, 워크숍 등에 편성된 사업비 74억 원을 자체 조정해 교육비로 충당한다.

한편 도내 고등학교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점심에 한해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또 지난 3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한 제3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통과로 다음해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신입생, 전·편입 학생들은 교복을 현물로 지원받는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의 지목을 받아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덕분에 챌린지' 동참

다음 주자로 제천·진천사회복지협의회 지목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이하 협의회) 임·직원이 24일 코로나 19 환자를 돌보며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 19 의료진과 방역인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작한 참여형

레이 캠페인으로 협의회는 충북종합자원봉사센터와 충북경영자총협회 중앙년일자리희망센터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영석 회장은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진들의 노력에 힘입어 비교적 안전한 생

활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감사드린다"며 "복지시설 후관 등의 어려움 속에서 사회복지인도 역할을 다하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응원을 이어가기 위해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할 다음 주자로 제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양순경)와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영)를 지목했다.

한편, 협의회는 모금회와의 연계를 통해 제1차 코로나 19 취약계층 긴급지원사업으로 도내 취약계층 410가구 및 지역아동센터 36개소를 지원 완료했으며, 제2차 사업은 취약계층 1,203가구를 대상으로 제3차 사업은 취약계층과 결식 우려 가정 1,685가구 총 2,400명, 사회복지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중이다.

또 지난 3월 20일에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재난 기본소득 지급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정기탁 사업으로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우한 교민 수용지역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진천 내 취약계층 739명에게 지역특산품(문백쌀 10kg)을 지원하기도 했다.



충북도는 여성폭력예방 및 지원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했다.

## '안전할 권리 위해' 충북도 여성폭력방지위 개최

충북도는 지난 3일 충북연구원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2020년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논의와 기관 간 여성폭력예방 및 지원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누구나 안전한 일상, 안전할 권리를 선언해 주세요!'라는 주제의 퍼포먼스를 통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다짐했다.

박현순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논의된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애쓰고 나아가 충청북도여성폭력위원회가 여성뿐 아니라 도민 모두가 안전한 충북도를 만드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연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및 예방, 보호시설, 상담소,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과 교육청, 경찰청, 법률구조공단을 포함한 의료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은 물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255-0504, 253-0504 FAX:(043)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hanmail.net

각종 교육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 “제천시 원스톱 육아지원 견인할 것” 충주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해결사’로 부상

###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27억원 투입 · 643㎡ 규모

### ‘실내놀이터 · 장난감도서관 등... 각종 체험활동 ‘풍성’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 제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 할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난달 20일 중앙시장 2층에 문을 열었다. 사업비 27억원이 투입된 지원센터는 중앙시장 2층 상가와 조

화를 이루며 643㎡ 규모로 실내 놀이터, 장난감도서관, 교육실, 상담실, 쉼터 등으로 꾸며졌다. 센터는 원스톱 육아지원 서비스의 중심축으로 영유아 부모들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는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제천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2025년 2월 6일까지 위탁 운영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체험공간, 부모·자녀 체험활동, 부모교육, 보육교직원 보수 및 역량강화 교육 활동 등을 제공한다. 또 중앙시장 내에 위치한 장점

을 살려 ‘중앙시장 데이’, ‘부모와 함께 요리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내놀이터는 타 시군 센터와 다르게 미취학아동 전 연령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로 조성됐으며,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어린이집 및 단체 등 기관은 100%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개인은 홈페이지 사전예약 또는 현장 방문이용도 가능하다. 이상현 제천시장은 “단순한 놀이나 돌봄 기능을 넘어 부모들의 육아와 자녀들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공간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시는 센터를 육아 지원 거점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천 중앙시장 2층에 자리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식에서 이상현 시장 등이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외국인 행정업무 음성에서 한번에”

###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 설치사업’ 선정... 편의성↑

음성군은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지원시설 공모 사업인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 설치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출입국, 고용허가 등 행정업무를 한곳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부처 협업기관이다. 군은 지난 3월 개소한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에 올해 연말까지 업무 공간을 구축하고, 법무부의 체류민원서비스,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통·번역, 상담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할 예정이다. 센터가 정식 개소하게 되면 그동안 청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던 외국인 체류관련 민원서비스를 음성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외국인과의 결혼 이민자 등이 업무처리를 위해 각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음성군 등록 외국인은 2020년 현재 9500여명으로, 센터 개소

를 통해 음성군뿐만 아니라 충북 중·북부지역 4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병욱 음성군수는 “앞으로는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에서 출입국과 고용허가 등의 업무를 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해지고 기업생산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지역주민이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음성군 “복지상담은 ‘복지톡’ 이용하세요”

### 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간·공간 제약없이 편리

음성군 대소면 행정복지센터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 ‘복지톡’을

운영한다. ‘복지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제보

하거나, 대면 상담이 부담스러운 주민들이 자신의 형편을 알리고 상담받을 수 있는 모바일 복지센터다. 온라인 복지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카카오톡에서 ‘대소 복지톡’을 검색해 친구 추가 후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복지톡’으로 1대 1 대화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대소면 맞춤형복지팀 직원이 상담을 진행한다. 남원식 대소면장은 “층층한 인적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대소면을 만들기 위해 ‘복지톡’이 더욱 활발히 이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주시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향상 총력”

### 3만3천가구 냉방기기 설치 지원 청주시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

###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영석 사회복지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편집고문 겸주필 김춘길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ssn@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는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단열, 창호, 바닥 보일러 교체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냉방기기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3만3000가구가 고 지원 금액은 평균 200만원이다. 재단에서 전액 국비로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다.

수선유지급에 대상 가구, 공공임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 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 가구나 3년 이내 지원 가구는 제외한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단에서 현장을 조사해 지원 내용 결정과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구를 발굴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작년 복지사각지대 1453건 발굴... 2억3천만원 모금 추진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눈길을 끌고 있다.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통합협의체, 읍면동협의체로 구성된 지역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색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며 소외계층은 물론 시민의

생활에 쓸쓸한 도움을 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읍면동협의체에서 지난 한 해 동안 124개의 특색 있는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1,453건을 발굴·지원했으며, 2억3000만 원의 연합모금 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회이나 사업이 중지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이 더욱 힘들어진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호암직동협의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소득가구 충주사

랑상품권 지원을, 연수동협의체는 저소득층 아동이 많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 초·중·고 학생 책상 제작 지원을, 봉방동협의체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반찬지원 사업과 지역의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꿈 끼쟁이 프로젝트’를 실시 중이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여러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지역의 취약계층이 더 고립되고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협의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주도적인 활동을 펼쳐주어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협의체 활성화가 지역복지의 구심점이 되고 나아가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진천군-청주 마이크로병원 MOU

### 진료비 15% 감면·저소득층 관절수술 지원 등 추진



민지홍(오른쪽) 청주 마이크로병원 이사장과 송기섭 진천군수가 18일 진천군청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천군은 18일 진천군청에서 진천군의 보건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해 청주 마이크로병원과 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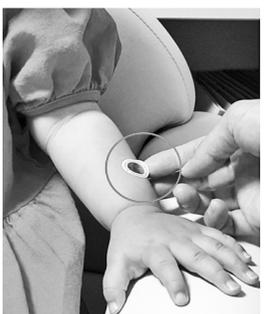
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어르신들을 효과적으로 발굴해 병원 입원부터 퇴원까지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으로의 안전한 복귀 및 재입원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주 마이크로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진천군민들에게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진료비 15% 감면, 매년 저소득층 2명에 대한 관절 수술 지원, 병원 입원진과 동일조건인 기비 제공 등 다양한 의료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지홍 마이크로병원 이사장은 “진천군민들의 의료 복지 향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진천군 “붙이는 체온계로 영유아 감염 대응”

### 색깔 변화로 체온 확인... 5천명 사용분 10만장 이달 배부

최근 수도권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 진천군이 도내에서 가장 먼저 붙이는 체온계 배부를 통해 감염증 발생 예방에 나선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번엔 배포하는 체온계는 스티커 형으로 목, 이마, 귀밑, 손목 등에 부착해 사용하며 체온 변화에 따른 색깔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평소 시에는 녹색을 띄고 37.5도 이상으로 체온이 상승하면 노란색을 나타내는 체온계는 한번 부착 시 최대 3일간 사용이 가능

하다. 군은 즉각적인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들의 원활한 체온 변화 관찰을 위해 6월 안으로 10만개 정도의 물량을 확보하고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78개소에 1인당 20개씩, 2개월분의 체온계를 배부할 예정이다. 체온계는 군 공직자들이 해당 기관에 직접 전달해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코로나 감염 격정에 불안한 마음으로 등원을 시키고 있는 지역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다소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번 체온계 전달과 함께



진천군은 영유아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붙이는 체온계 10만장을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한다.

코로나 감염 예방 수칙 홍보도 병행해 감염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5월 푸드뱅크·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충북광역푸드뱅크 (주)에스엔푸드, CJ신선 진천센터, GS리테일 발안물류센터, 롯데칠성 광명센터, CJ나눔 개롱센터, CJ수원반점센터, 대상 양지센터, 대상 용인저온센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농협, 충북낙농농협, 나눔축산운동본부, 중원랜드, 한우협회, (주)파낙산, (주)대승푸드, 롯데푸드, 체리부로, CJ유통(중평점), 송림푸드, 청주유통, 예버리치, CJ신선 덕평센터, 롯데칠성 대전센터, 중앙제관(주), 롯데네슬레 청주공장, LG생활건강, (주)엘로드림, 송림푸드, 대상 덕평센터, 시아스 청주공장, 영농법인 무지개농장, (주)더불어, (주)피이씨푸드, (주)금강B&F, KGC인삼공사 충북지점, 투샘플레이스, 침양식품, 리온알에스, 주식회사 지지코리아
- 청주흥덕기초푸드뱅크 동양오츠카충청청주지점, 롯데제과(주)청주영업소, 마늘보쌈, 설악주어탕, 좋은아침, (주)계이씨푸드, 명동보리밭, 삼육유유서부대리점, 좋은아침, 피자허 청주대점
- 청주사랑나눔푸드뱅크 참조유통, 델리스(분평동), 백설유통, 홀몰러
- 스익스플러스, 좋은아침(가경점), 파리바게뜨(개신점), 파리바게뜨(북대점), 바우어, 좋은아침(북대점), 두레주르(비하계통점), 단킨도너츠(강서점), 팽스팽스, 롤링핀(지웰시티점), 이츠굿해이커리, 금관마트, 동청주오뚜기, 초이스베이커리, 플로리안, 좋은아침(성안점), 좋은아침(성화점), 파리바게뜨(가경대우), 청도너츠, 바로구운빵, 도담영농조합법인, 청풍명월, 명성물류, 머거바식품, 자연솔푸드, 무드글로리, 한솔, 비전영점, 뉴타운점, 올랑칸타빌점, 올랑점, 개신점), 수암골 영광의제인, 좋은아침 오송점, 서문우등, 용암서문우등, (주)떡과풍경, (주)민영, 김대현베이커리
- 청주드림푸드뱅크 파리바게뜨(원평점, 분평우성점, 금천부영점, 산남점, 농협하나로점, 용암효성점, 용암현대점, 건영점, 뉴타운점, 올랑칸타빌점, 올랑점, 개신점), 수암골 영광의제인, 좋은아침 오송점, 서문우등, 용암서문우등, (주)떡과풍경, (주)민영, 김대현베이커리
- 청주제일푸드뱅크 청주제일교회, 한기장복지재단, (주)한백식품, 두레주르 율랑점
- 청주새영푸드뱅크 좋은아침오창점, 파리바게뜨쌍용점, 두레주르한라점, 두레주르산업단지점, 기분좋은날, 그린하우스과자점, 오정출마트, 자갈치 민속떡집, 찰떡궁합, 광주기독교서점, 전원푸드락, 낙원떡방
- 청주구세군푸드뱅크 주식회사 시아스, 두레주르 금천점, 파리바게뜨 분평점, 한솔 제2공장, 공천떡집, 금관할인마트, 해신수산, 두레주르 금천뉴타운, 따베오 베이커리, 행복8떡집, 유산떡방,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떡이랑, 두레주르 청주용정점, 파리바게뜨 청주용안역점, 영농조합법인 희어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용안점, 천명영농조합법인, 정수기회(후생사), (주)월드이십일 에이치규, 자연연합영농조합법인, 천명, 김가네 생고기정육점,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주주점, 서울우유치즈, 시아스우등, 두레주르 분평점, 목향정교, 금관할인마트 율랑점, 청주특남(주), 무외에뚜와
- 청원기초푸드뱅크 (주)우리농, 신과들F&C, 파리바게뜨 오정중앙점
- 중평군푸드뱅크 거림기계, GS슈퍼 중평점, 케이하우스, 금호솜 불갈비, 서산식품, 좋은아침 율랑점, 파리바게뜨 내수점, 한그루식품, 오뚜기, 단비상사, 단킨도너츠 중평점, 델리컨 중평점, 그린유통, GS25 중평대로점
- 괴산군기초푸드뱅크 진미식품, 괴산잡곡, 신선노도, 신선촌, 운산식품, 제중당약국, 풀무원, 서미숙, 유인숙, 장국희, 따베오 베이커리, 두레주르괴산점, 파리바게뜨괴산점, 매키로통상, 미미식품, 한살림축산식품, 주성베이커리
- 옥천군푸드뱅크 두레주르 엘마트점, 구가네 농이보강, 조마루 갑지탕, 독도가든, 행운목, 미가(한정식), 이가화로, 옥천천담토리클럽, (주)한일푸드
- 영동나눔푸드뱅크 두레주르(김홍옥), (주)벤엘유가공
- 보은군기초푸드뱅크 (T, 543-6255) 서울우유(보은점), (주)서우농,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전중앙물류센터
- 음성군푸드뱅크 CJ푸드빌, 꽃피는아침마을, (주)다농원, 삼원농장, 영양떡방앗간, 김이박부대찌개, 단킨도너츠(금양), (주)이지언면, (주)후드원, 김점철소머리국밥, (주)맑은해오름, (주)풀무원, (주)맑은식품
- 진천군푸드뱅크 삼진푸드, 두레주르(성모병원점), 면사랑, 체리부로, 조인, 목우촌, 동원(이천,백암), 삼육두유, 파리바게뜨(덕산점)
- 진천나눔과기쁨푸드뱅크 파리바게뜨 진천장관점, 태남 메디스코, 신토식품, 윤지영, 김정식, 리브가왕만두떡방, 김수혁, 델리컨(이월점), 에스엔푸드, 자혜식품, 명기떡집, CJ푸드빌, 해마로푸드서비스, 파스쿠찌, 행복한 떡집, 이삭식품, 명가떡집, 생거진식품, 맑은해오름
- 충주기초푸드뱅크 고인물식품, 대우유통, 델리컨충주교현점, 떡보
- 의하루, 두레주르 주덕점, 롯데제과(주)충주영업소, 삼성청와유통, 삼일상회, 서울우유치즈충주대리점, 유원유통, 육사정교, 은혜정교, (주)미림농산, CS코리아, 자미원에프앤지, 충주청교, 하나로베이커리(충주점), 한아름정교
- 제천시푸드뱅크 건국유업, 두리메리케, 롯데제과 제천, 박달재씨푸드, 문유통, 씨알푸드, 오뚜기 제천점, 오뚜기 태성김치, 푸른촌, 풀이라인, 365할인마트, 크리스크리프제천중앙점, 호수상사
- 단양군푸드뱅크 진천면사랑, 진천(주)푸드, 음성CJ, 음성(주)진천, 충주김치나라, 제천푸른촌, 롯데칠성, 일죽청정원, 제천씨알푸드, CJ 진천, 단양(주)정풍, 단양두송식품, 서울우유 단양대리점, 파리바게뜨 단양대리점
- 단양나눔과기쁨기초푸드뱅크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광주파리크라상업체, 신선초, 하림, 맑은식품, 한돈, 쎄디푸드, 대상청정원

# 옥천군, 도내 첫 교육재난특별장학금 지원

### 중·고등생 2003명·초등 1773명 1인당 10만원씩 지급 코로나19로 취소된 사업비 등... "학생대상 보편지원책"

옥천군장학회가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으로 관내 학생들에게 교육재난특별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회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고교 재학생으로, 학구 조정에 따른 관외 중학교 재학생도 포함된다.

다만 초교 1학년은 군의 인구증

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초교 입학 축하금의 수혜를 받음에 따라 제외됐다.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초등생은 12개교 1773명이며 중·고등생은 8개교 2003명으로 학생 또는 학부모의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

소요액은 4억원으로, 올해 장학회 교육사업 중 코로나19로 취

소된 사업비와 예비비 일부를 사용한다.

당초 관내 학생들에게 해외 문화탐방과 어학연수 기회 제공을 위한 주니어 글로벌 캠프 사업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김재중 이사장은 사업비를 이월하는 대신 학생들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국가 재난지원금, 군 재난극복지원금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특별장학금을 제안했다.

군장학회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

과 지원방법 등을 결정했다.

장학회 관계자는 "이번 특별장학금은 별도 조건 없이 학생 전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관련해 충북도 최초의 학생 대상 보편적인 지원책이라 점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재중 이사장은 "이번 특별장학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에서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보은교육청, 청소년 문화공간 지원 협약

### "코로나19 군민과 함께 극복"

보은교육지원청은 삼산리에 소재한 보은교회(담임목사 안신희)

와 청소년 문화 공간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 공간은 지역 속에 부족한 청소년 공간을 해결하고자 보은교회와 보은행복교육지구의 소



박인재(왼쪽 두번째) 교육청과 안신희(오른쪽 두번째) 목사를 비롯한 협약식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 협업으로 마련됐다.

보은교회 교육관 2층 공간은 최근 카페처럼 아늑한 분위기로 리모델링을 했으며 소모임부터 공연, 강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 지역으로, 동광초와 보은삼산초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보은교회는 접근성이 좋아 청소년들의 심과 배움의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보은행복교육지구는 마을의 돌봄 기능에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개의 마을돌봄교실 운영, 3곳의 청소년카페와 협약 뿐만 아니라 2개의 마을연계돌봄을 협조하며 마을 내 유휴 공간이 청소년 공간으로 만들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일 청산 지역아동센터 준공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 옥천 청성·청산 아이들의 공간 생겼다

### 충북 최초 공립형 아동센터 준공

옥천군은 3일 공립형 지역 아동센터인 '청산지역아동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은 김재중 옥천군수를 비롯해 국회의원 김용철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관계자, SBS, KILPGA 외 다수의 후원사 등 관계 기관에서 60여명이 참석했다.

군은 공립형지역아동센터는 지

상 2층(295.63㎡) 규모의 아동 전용공간으로 청성·청성 지역 아동들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청성·청산면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오후 4시 이

후 아동들을 돌볼 시설과 인력이 적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절실했다"며 "아이들이 돌봄을 받도록 체계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군은 2018년 SBS와 굿네이버스가 주관한 지역아동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센터 건립 추진 단계부터 워크숍과 지역 아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설계에 반영했다.

이에 군은 청산면 지리리 32의 9 부지내 기존 청산보건지소를 철거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4억원과 군비 3억5천만 원을 보태 총 7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건물을 준공했다.

군은 센터를 방과 후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보충 학습과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아동의 정서 및 사회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영동군 65세 이상 노인 급식비 10만원 지원

### 코로나19 대응 일환... 생활안정·지역경제 활성화 'OK'

영동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폐쇄 장기화가 지속되자, '65세 이상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노인들의 건강과 안정을 살린다.

군에 따르면, 영동군은 65세 이상 지역 노인에게 10만원의 급식비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시책사업이다.

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로회원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 우려로 인해 경로당이 지난 2월부터 공식 폐쇄돼 지역 노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존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등의 경로당 운영 관련 예산을, 지역 노인들의 일상생활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 맞춤형 사업으로 용도를 바꾸기로 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두드러진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생활의 어려움과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6월 기준 1만5천명 정도의 군민이 대상이다.

경로당 가사도우미 운영 예산과 예비비 일부를 포함해 약 15

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중단돼 실효성이 적었던 사업을 군민들의 복지 혜택을 위해 재추진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르면 이달 22일부터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상품권 지급으로 지역 노인들의 생활안정 도모는 물론,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경로당 폐쇄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 해소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65세 이상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등 군에서 추진하는 여러 생활안정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침체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괴산군 인구감소·저출산 대응 공모 선정

### 청안면 부흥민원실 리모델링 돌봄센터·작은도서관 등 조성

괴산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2017년 음성 주민의국인지원 통합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3년만이다.

행안부의 이번 공모사업은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문제 해결과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 자치단체별 지역 실정에 맞는 거점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국에 총 10곳을 선정해 80억원(특교세 40억원, 지방비

40억원)이 투입된다.

선정된 군의 주요 사업내용은 청안면 부흥민원실을 리모델링하여 돌봄센터, 맘케어네트워크, 작은도서관, 어린이 실내·외 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것이며, 총사업비는 6억원으로 국비 3억원, 도비 9천만원, 군비 2억1천만원이 투입된다.

##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확대

### 7월부터 9~24세로 늘려 수급 혜택 150명 증가

영동군이 청소년 복지 혜택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13세에서 18세까지만 지급하던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대상자를 오는 7월부터 확대한다.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사업은 민선 7기 영동군의 주요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로 균형발전인 '복지의 맞춤형'에 따른 복지시책이다.

지역 청소년들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도 선제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청소년의 이·미용실 이용, 목욕탕 이용, 건강보조제(비타민, 칼슘제, 성장발육제 등) 구매 등에 활용하도록 매월 3만원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의 핵심 일꾼이 될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군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도 높은 편이다.

군은 지난해 1월부터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13세부터 18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대상자에게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를 지원해 왔다.

이에 초·고·대학 청소년의 위

생 건강 문제 등이 야기되면서 13세 이하의 청소년을 위한 복지 사업이 필요해짐에 따라 영동군은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의 연령인 9세~24세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확대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치고, 관련 조례 개정과 2020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소요액을 편성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확대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그동안 월 평균 150여 명의 저소득청소년이 혜택을 받았으나, 연령 확대에 따라 150여 명 정도가 추가로 지원될 수 있어 내달부터는 약 300명의 저소득청소년이 건강증진비 혜택을 받게 된다.

## '괴산은 해피데이'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

### 100개 단체 10월까지 진행

괴산군자원봉사센터가 지난 10일 괴산여성회관에서 '해피데이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행사를 갖고,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해피데이 자원봉사 릴레이'는 이차영 괴산군수가 전달한 릴레이 깃발을 관내 100개 봉사단체가 차례로 이어 받아가며, 어려운 이웃과 지역주민을 위해 펼치는 재능 나눔 봉사활동이다. 올해 출

발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참여인원과 행사규모를 대폭 축소해 진행됐다.

이날 '해피데이 자원봉사 릴레이'에는 이달 30개 단체를 시작으로 7월 12곳, 8월 17곳, 9월 25곳, 10월 16곳 등 총 100개 단체가 동참 예정이다.

안병철 센터장은 "해피데이 자원봉사 릴레이가 자원봉사 활성화는 물론 지역발전의 계기가 됐



괴산군자원봉사센터가 지난 10일 괴산여성회관에서 '해피데이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행사를 열었다.

으면 한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출발행사가 늦어진 만큼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를 배려하고 보듬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힘과 지혜를 모아 모두 함께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 충북사회복지신문

###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15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00,000

계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사회복지사 안전보장 대책 마련하라”

### 남인순 의원 기자회견서 촉구... “법률 개정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안전보장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함께 15일 '사회복지사에 대한 안전보장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국회 소

통 기자회견실에서 “지난 8일, 창원에서 발생한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폭행사건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전국의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공분을 샀다”며 “매일 주민을 응대해야 하는 주민 센터나 복

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과 위협 사건이 매일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들의 대부분은 여성이어서 폭력에 쉽게 노출되며 그 피해가 크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사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당 차원에서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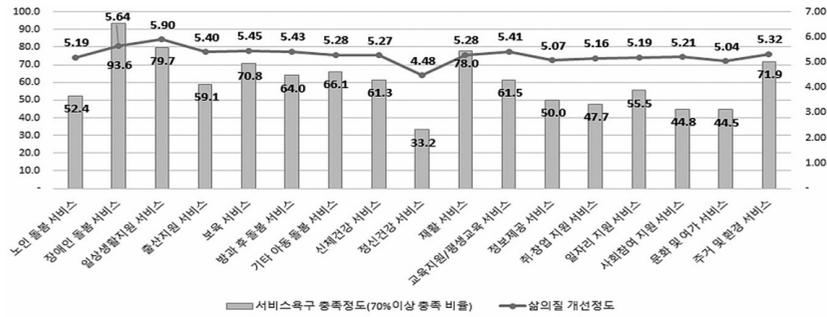
박영용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은 “이 시간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들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폭행·폭언·기물파손 등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위협정도가 심해지는 상황”이라며 “한 번의 기자회견으로 끝나지 않고, 법제화와 각 부처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국민의 행복을 드리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의 지원대책 대부분이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담당 업무”라며 “코로나19로 복지서비스가 중단된 취약계층의 우울과 스트레스가 증가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여러 폭행·폭언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제도개선과 처우개선 대책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 작년 가장 많이 이용된 사회 서비스는 ‘건강’

지난해 이용률이 가장 높은 사회 서비스는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을 포함한 ‘신체건강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대상의 70% 이상이 앞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 서비스 수요 현황과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 공급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지난해 전국 4000가구와 사회 서비스 제공업체 11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 서비스 수요·공급 실태 조사’의 결과를 4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00가구 중 63.2%(복수 응답)가 신체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신체건강 서비스에는 당뇨·고혈압 관리 서비스와 건강검진, 예방접종, 금연·금주 프로그램 등이 속한다. 조사 대상 가구의 73.1%는 앞으

로도 이런 신체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가구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서도 신체건강 서비스 이용률과 이용 의향이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영유아가 있는 375가구의 경우 신체건강 서비스(60.0%)보다 보육 서비스 이용률(81.7%)이 높게 나타났다. 이용 의향 역시 ‘보육 서비스’라는 답이 86.5%로 가장 높았다. 사회 서비스 지원 대상으로는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3.6%였고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응답자는 43.0%였다.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인 59.5%가 ‘국가와 이용자가 함께 부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18.4%였다.

돌봄 서비스 비용과 접근성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자들이 5점 만점에 대부분 보통 수준인 3점 이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방과 후 돌봄의 비용 적절성 항목에서는 평균 2.68점을 매겨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생활에서 겪는 문제가 사회 서비스 이용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됐는지 파악하려는 질문에서는 61.4% 정도가 6점 만점에 5점 이상을 줬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93.6%가 5점 이상을 줬고, 정신건강 서비스의 경우 33.2%만이 5점 이상이라고 답했다.

삶의 질 개선 영향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서비스가 7점 만점에 4.4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 “긴급지원 기준 완화·기한 연장 검토”

### 재산기준 약 35%·가구별로 61만~258만원↓ 전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저소득층에 타격이 집중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고,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한차례 완화한 지원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기한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유지비를 지원하

는 제도다. 평생시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지역별로 1억8800만~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저소득층을 덮치자 지난 3월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다.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500만~6900만원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는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가 아닌

100%로 적용 중이다. 이로 인해 재산기준은 약 35%, 가구별로 금융재산 기준은 61만~258만원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 바 있다.

정부가 긴급복지제도 요건을 추가 완화하고 기한연장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저소득층에 집중된 타격과 소득 격차 확대가 있다.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10% 가구(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이 1년 전보다 3.6% 감소하면서) 분위 중 가장 큰 격차를 맞았다. 반면 소득 상위 10% 가구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하면서 소득 격차가 확대됐다.

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 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2만여명 추가혜택 전망

보건복지부가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00%였으나 앞으로 120% 이하 까지 확대함에 따라 4인 가구 기

준 월 567만 원 소득자까지 포함한다.

아울러 그동안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 3000여 명이 추가되어 올해 동안 총 14만 명이 지원 받을 예정이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명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명자료 등이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 중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

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늘어나는 노인학대... 가해자 62%는 ‘가족’

### 작년 신고 3.8%↑... 재산 뺏는 ‘경제 학대’도 12%↑

학대받는 노인이 갈수록 늘고 있다. 노인학대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아들, 배우자로부터 학대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6천71건으로 전년(1만5천482건)보다 3.8% 증가했다.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 34곳이 지난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노인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는 총 5천243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32.6%였다.

노인학대는 보통 여러 유형의 학대 행위가 동시에 발생적으로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정서적 학대 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42.1%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38.1%), 방임(9.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허락 없이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벌린 돈을 갖지 않는다’,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 사례는 2018년 381건에서 지난해 426건으로 11.8%나 증가했다. 노인 학대 대부분은 집 안에서, 가족에 의해 벌어졌다.

학대가 일어난 장소를 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4천 450건으로 전체의 84.9%를 차지했다. 이어 생활 시설 486건(9.3%), 이용시설 131건(2.5%) 등의 순이었다.

학대 행위가 반복되는 ‘재학대’ 사례의 경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97.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 행위자(총 5천777명)와 피해 노인과의 관계를 따져본 결과 아들 1천803건(31.2%), 배우자 1천749건(30.3%) 순으로 많았다. 아들과 배우자를 합

치면 61.5%로, 이 중 배우자 비율은 해마다 높아졌다.

의료인을 비롯해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학대 사례도 1천67건(18.5%)으로 적지 않았다. 노인 스스로 돌보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본인 학대’도 200건(3.5%)이나 됐다.

노인이 다른 노인을 학대하는 이른바 ‘노(老)-노(老)’ 사례는 2천137건으로, 37.0%에 달했다. 노인 혼자 사는 단독 가구에서 학대 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1천39건(19.8%)이었다. 노인 부부 가구에서 학대 피해를 겪는 경우는 2018년 1천512건(29.1%)에서 지난해 1천669건(31.8%)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 의사에 반해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를 막고자 통장관리 서비스, 생활경제 지원이 사업 등을 시범 운영한다.

##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 2. 봉사단 위촉 기준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 3. 봉사활동 분야

구분	내용
기술·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상담·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예술	음악, 연극, 무용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학습	나눔·경제교육,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행정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입부보조 등
교통·환경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 4.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중복지원 불가, 충북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참석)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 5. 신청 및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김민지 코디네이터

전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 10명 중 6명 비대면 진료도입 '찬성'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충북도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결과  
"보다 안전한 환경 위해 필요"... 도입 반대는 28.7% 낮은 편

충북도민 60%는 비대면 진료 도입에 찬성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 이하 센터)는 충북도민으로 구축한 일 반패널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비대면 진료 혹은 원격 진료에 대해 '의료산업 활성화와 진료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으니 도입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9.9%로 나

타났으며, '오진 가능성이 있고 대형병원의 독점이 강화될 수 있으니 도입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28.7%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지난 1년 간,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은 '개인·종합병원(4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혼은 기혼과 비교해 약국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약국보다는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과 한의원(병원 등)을 더 많이 이용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결과 충북지역의 의료 서비스 기반(약국, 병원, 보건소, 한의원 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약 6점(10점 만점)으로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의료 서비스 기반이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 발생 시 또는 긴급한 의료행위가 필요할 때 '119구조대(70.6%)'에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는 지역에서 건강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은 개인·종합병원 57.1%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의 서비스 만족을 조사한 결과 6.4점(10점 만점)으로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만족하는 결과로서, 만족(가깝고 교통편 편리) 46.2%와 불만족(거리가 멀고 교통편 불편)이 43.1%의 주된 요인은 '거리 및 교통편'에 대한 차이로 조사되었다. 현재 가장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성인병 및 암 검진사업'이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비 감면'이 21.8%,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실 운영'이 17.3%, '보건 의료시설의 신설'이 15.2%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남성은 '성인병 및 암 검진사업'이 29.9%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실 운영'이 24.3%로 나타났

# '나우리봉사회' 충북 봉사단체로 자리매김

2020 충북 로타리봉사 대상 21년째 자발적 봉사활동 진행

국제로타리 3740지구와 MBC충북이 함께하는 로타리봉사대상 시상식이 14일 그랜드 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렸다. 로타리 봉사대상은 국제로타리 3740지구와 MBC충북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3월 13일 협약식 및 공동명가단을 구성하여 봉사대상을 선정하였다. 봉사대상에 선정된 나우리봉사회(회장 신홍식)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봉사단으로 21년째 지역사회 봉사를 실천하는 단체로 회원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소속 나우리봉사회는 2020년 충북 로타리 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90여명이 자발적으로 주말, 주중을 이용해 시설어르신 위문공연 및 무료급식 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귀감이 되는 단체이다. 나우리봉사회 신홍식 회장은 "봉사하는 매순간이 행복했고, 가치가 있기에 봉사활동이 21년째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뜻을 같이해준 봉사단 회원들과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충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충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는 도내 위탁가정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미디어 사용을 위한 안전망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 "위탁가정 미디어 과의존 안전망 강화하겠다"

충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충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협약

충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충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난 12일 진흥원 꿈드림교육실에서 도내 위탁가정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미디어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외

부활동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난 위탁가정 내 아동청소년들에게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와 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는 위탁가정의 만 9세~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

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진단조사 결과에 따라 주의사용자군과 위험사용자군으로 선별된 대상자들에게 개인상담, 전화상담, 집단상담, 병원치료 연계 및 종합심리검사비 지원, 치유캠프 등의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한다.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12개 시군지역으로 찾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미디어 사용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운영한다. 김동환 충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은 "이번 충청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은 위탁가정 내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과 지역사회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함께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자칫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위탁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과의존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앞으로도 모든 아동청소년이 소외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청주복지재단 협약

복지사 정신건강 보호체계 구축 직무능력 향상-안전 근무환경 조성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박선홍)는 청주복지재단(이사장 한범덕)과 청주 복지종사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주시 복지종사자의 정신건강 안전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진행되었다.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청주시 복지종사자의 정신건강 상담과 정신질환의 예방,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교육을 진행한다.



청주 복지종사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주복지재단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주복지재단은 청주시 복지종사자의 정신건강 안전보호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박선홍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종사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과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이동목욕사업 실시

중증장애인 목욕자랑 방문 서비스 한다.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가정에서 목욕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목욕사업을 실시

한다. 이동목욕사업은 목욕시설의 이용이 어렵거나 가정에서 목욕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신 설비가 설치된 목욕차량과 함께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저소득 희귀질환아동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센터장 이순희, 이하 보조기기센터)는 충북도 내 장애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선택 및 편리한 사용을 위해 맞춤형 보조공학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에 사회참여를 위해 힘쓰고자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 희귀질환아동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보호자의 신체적·경제

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지원받은 보조기기를 활용해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23세 이하의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 받은 자이며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2020년 기준 중위소득 80%인 자가 신청 가능하다. 지원 품목은 1인당 250만원 미만의 개인별 적합 맞춤형 보조기

## 어린이재단 '온라인 캠페인 서포터즈' 활동 본격 시작

충북대 등 11명 서포터즈 선발 무연고 아동 지원 캠페인 구성해 SNS·온라인커뮤니티 등 게시



'온라인 캠페인 서포터즈' 대학생들이 발대식을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선귀)는 9일 어린이재단 회의실에서 '온라인 캠페인 서포터즈'발대식을 가졌다. '온라인 캠페인 서포터즈'는 도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돕는 봉사활동으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대면적 나눔 문화가 위축

되면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저소득 아동들의 상황을 알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서포터즈로 꽃동네대학

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학생 11명이 선발되었으며 이번 서포터즈는 엄마, 아빠 없이 세상을 홀로 남겨진 무연고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 내용을 직접 구성하고 이를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온라인 캠페인 서포터즈 안내, 캠페인 교육, 컨텐츠 강연 및 실습이 진행되었고 효과적인 채널 운영 및 컨텐츠 제작방법을 통해 무연고 아동들을 돕는 활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온라인 캠페인 서포터즈'는 앞으로 4주 동안의 활동을 통해 후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고용및직업
- 주거지원
- 보육및교육
- 의료및건강
- 요양및돌봄**
- 정신및심리정서지원
- 문화및여가
- 권익보장및법률
- 일상생활지원
- 기타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성인
- 노인**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눔미/종일/노인
-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역대 최대 추경 35조3천억원 편성

### 일자리·기업·K-방역 등 한국판 뉴딜 도약 위한 발판 마련 고용충격 대응 유동성 확보... 하반기 경기회복 뒷받침 재정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5조 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3차 추경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 4000억 원)을 넘어서는 가장 큰 규모로, 코로나19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한 해 세 차례 추경은 1972년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있는 일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하던 3월 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및 방역 강화를 위해 11조 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극심한 소비 위축을 겪던 4월에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 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 대책 및 기업 금융지원과 6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 과제 등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 담겼다.

현장에서 기업과 상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하반기 내수·수출 등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재정지원이 핵심이다.

#### 국채 발행·세출 구조조정 병행

정부는 6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제3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어렵다고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 시국에 간곡히 요구되는 국가의 역할, 최후 보루로서 재정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다”며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마중물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35조 3000억 원에 이르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23조 9000억 원에 경기 부진으로 줄어든 세수를 채워 넣는 데 11조 4000억 원을 쓴다. 재원은 지출 항목 조정과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기존에 편성된 예산 가운데 지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줄이거나 여유자금 재원을 끌어와 12조 5000억 원을 확보했다. 나머지 23조 8000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한다.

먼저 세출에서는 위기기업·일자리를 지

는 금융지원(5조 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 4000억 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 7000억 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 시스템 고도화(2조 5000억 원)에 각각 투입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는 5조 1000억 원을 투입하면서 5년간 76조 원 투입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주력 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135조 원 규모의 금융안정지원 패키지 대책 중 한국은행과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53조 원을 제외한 82조 원의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할 재원을 5조 원 담았다.

또한 기업과 일자리 안정을 위해 8조 9000억 원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 개+α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3조 6000억 원,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에 3조 5000억 원 쓴다.

#### 고용충격 대응·경기보장 지원

이와 함께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9000억 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신설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6000억 원을 투입한다.

내수와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3조 7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숙박, 공연 등 8대 분야에 할인 소비쿠폰 1684억 원어치를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5조 원 추가가 발행하고,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구입 지원을 1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세 배 늘린다.

또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억 원 규모의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고 수출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무역보험공사에 3271억 원을 출연, 수출 회복을 유도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525억 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 보강을 진행한다.

방역산업 육성과 시스템 보강에도 나선다. 민간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돕기 위해 1115억 원을 배정했고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 자금 융자에 4000억 원, 의료용 보호구 772만 개와 인공호흡기 300대 등을 비축하기 위해 2009억 원,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에

역대 추가경정예산 규모		내용	
2013	17조 3000억	경기침체 및 세수결손 대응	
2015	11조 6000억	메르스 사태·가뭄 대응	
2016	11조	브렉시트(Brexit), 기업 구조조정 영향 대응	
2017	11조 2000억	일자리·민생안정 지원	
2018	3조 8000억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지원	
2019	6조 7000억	미세먼지·선제 경기 대응·강원산발 및 포항지진 피해 지원	
2020년	1차	11조 7000억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
	2차	12조 2000억	재난지원금 지급
	3차	35조 3000억 원	

####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11.4조 원  
-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 5.0조 원  
-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 경기보장 패키지 18.9조 원

3차 추경안 주요 내용	
35조 3000억 원	
11.4	<b>세입경정 11.4조</b>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 코로나19 등에 따른 성장률 하락 영향 반영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감면 등 용인 반영
5.0	<b>세출 확대 23.9조</b>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 5.0조 -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지원 - 주력 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
8.9	<b>고용·사회안전망 확충 + 경기보장 패키지 18.9조*</b> <b>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4조</b> - 고용유지·직접일자리·실직자 지원 등 고용안정망 강화 8.9조 -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0.5조
0.5	
3.7	
5.1	<b>경기보장 패키지 11.3조</b> -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7조 -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 고용안정망 강화) 5.1조 - K-방역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2.5조
2.5	
*한국판 뉴딜과 타 과제(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및 K-방역 등) 간 중복: 약 1.8조 원	
<b>자원 조달</b>	지출 구조조정 10.1조 + 기금 자체재원 활용 1.4조 + 국채 발행 23.8조

(출처: 기획재정부)

300억 원을 책정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예고했던 ‘한국판 뉴딜’에는 5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중 디지털 뉴딜에 2조 7000억 원, 그린 뉴딜에 1조 4000억 원, 고용안정망 강화에 1조 원 등이 투입된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디지털 생태계, 포용 및 안전망,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로 구성해 2022년까지 총 13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에는 2조 7000억 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언택트) 산업 지원을 위해 2020년 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1조 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한다.

#### 국회 통과 시 3개월 내 75% 이상 집행

또한 2021년까지 도서, 벽지 등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1300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노후한 공공시설 와이파이(WiFi) 1만 8000개를 교체한다.

전국 약 20만 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중소기업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2880억 원을 들여 8만 곳에 대해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 이용에 쓸 수 있는 사용권(바우처)을 지원하고 SOC 디지털화에 4800억 원을 투입한다.

그린 뉴딜 사업에는 환경친화적 인프라, 녹색 산업, 저탄소 에너지 등 3대 분야 8대 중점과제로 구성, 2022년까지 12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안에는 1조 4000억 원을 반영했다. 2352억 원을 들여 노후화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 낡은 공공시설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에 착수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1만 호와 어린이집 529곳, 보건소·의료기관·학교 612곳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 시스템을 보강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3000억 원을 들여 산업단지과 주택, 건물, 농

촌에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용자 지원을 확대한다.

휴먼 뉴딜 사업은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 안정 등 5대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2022년까지 5조 원을 투입하며, 3차 추경안에는 1조 원이 반영됐다.

5대 과제에는 2022년까지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근무환경 혁신을 위한 클린사업장 확대, 신종면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 등도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 적자 부담 등 건전성에 대한 지적을 유념해 향후 재정의 중기적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게 정부가 각별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3차 추경안이 확정될 것이라며, 확정되면 3개월 내 75% 이상이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위클리경제)

## 특별기고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사회안전망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해방 이후 70여 년의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기본 골격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중 첫번째 문제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복지사업 가짓수가 너무 많고 자격 요건 역시 다양하고 복잡해 복지 수혜자가 누락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와 중복과 탈법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 2019년 7월 발견된 탈북자 모자 아사 사건 등 참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사회보장정보원 설치 등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40%를 상회하는 노인빈곤 문제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자살문제 역시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역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두번째 문제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의문이다. 이는 특히 공적연금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

역사가 오래된 공무원연금과 군인 연금은 2018년 현재 각각 2조2000억원, 1조6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할 전망이다이고 이는 전액 국고로 충당해야 한다.

국민연금 역시 현재는 연금 수급자가 적어 적립금이 2019년 7월 현재 700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현재 9%의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58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 역시 막대한 수준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해, ‘문재인 케어’ 정책 추진으로 건강보험 재정도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으면 재정위기를 맞을 것이고, 코로나19 후속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역시 정부 복지재정에 큰 짐이 될 것이다.

기존 사회안전망의 세번째 문제는 고용이 안정되고 ‘평생직장’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 사회안전망이 소득 격차가 심해지고 고용 불안이 커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적절할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팬데믹(pandemic)으로 세계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에서 기존 사회안전망은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대다수가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한 긴급자금지원과 동시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기존 사회안전망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국

제사회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본소득제도(UBI: Universal Basic Income)’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안전망 설계를 제안한다.

흔히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최근 사회정책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인 LAB205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 1인 기준 월 3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제도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새로운 세금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기존 복지제도와 조세 감면제도의 전면적 개편만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이 연구 결과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기본소득제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를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필자가 기본소득제도를 새로운 사회안전망의 중심에 두려는 이유는 이 제도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저소득층 지원 제도의 맹점인 근로의 욕감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 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일단 수혜 대상으로 지정되면 무상 의료,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혜자들은 추가 소득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탈락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종 복지혜택을 누리는 이들을 ‘중공무원’이라고 부른다.

물론 근로 능력이 있는 수혜자에게는 직업 훈련 및 안정 과정을 거쳐 취업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나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보는

기본소득제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선별복지의 경우 항상 문제가 되는 대상자 선별 기준과 과정에 대한 시비가 기본소득 제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과정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처음에는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려 했으나, 대상자 선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급증하자 정부는 지급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바꾸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한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금을 주는 기본소득제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기본소득제도는 현행 사회안전망의 최대 취약점인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혜자 선정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발생하는 데,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는 기본소득제도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또한 기본소득제도가 정착되면 만성적 적자를 보고 있는 공적연금의 개혁도 가능해질 것이다. 새로운 세금의 신설이나 세율 인상이 기본소득제도를 추진하려면 기존 복지제도와 조세 감면제도를 포함한 경제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우선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짓수가 많고 수혜 기준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행 복지제도의 소득에 관한 수혜기준이 무려 1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4개로 단순화하는 작업을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도 실시로 현금성 복지제도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조세감면 제도 역시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OECD는 한국의 조세 감면제도가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에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계기로 기존의 조세 감면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면 조세의 효율성은 물론 소득재분배 기능 역시 크게 제고될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는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 등 저소득층을 보호하려는 목적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 확고히 구축된다면 경제정책은 경제논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기본소득제도 추진과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도 민간의 자발성과 혁신성을 촉진하면서 공공은 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인적 자원과 시설 운영 경험이라는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수습 과정에서 민간 의료계가 보여준 성공 사례를 교훈 삼아, 가칭 ‘한국형 사회복지서비스(K-SS) 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국내에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 전파할 것을 적극 권의한다.

(출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저널 6월호)

복지진단

코로나19가 사회복지시설에 미친 영향 및 대응방안

현장의 목소리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은 우리 시대 최고의 위기임에 틀림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거센 불길은 발원지 중국과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주대륙으로 번지고 있다. 하루에도 수 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외신을 접하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인의 일상이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19는 출입국 제한, 업무 공간 폐쇄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외부 활동 자체로 관광산업을 비롯한 지역업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또한 개학을 못하고 있어 온라인 강의를 하는 등 파행적인 수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학사일정이 뒤로 미뤄졌다.

이처럼 경제,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위기를 겪으며 이겨내고 있다. 물론 아직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과 민간단체, 개인 모두가 기존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기에 작은 성과가 쌓이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확인했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대구 시민들은 동요하지 않았고 당국 지시에 협조하면서 이겨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서도 그렇지 않았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협조 하는 등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사실 2000년 이후 발생한 국내 감염병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신종플루 확진자보다 적다. 치사율도 지금까지 발병한 전염병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밀집 접촉에 의한 확진자가 증가한 데 기인한다.

이처럼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대면 접촉을 지양하고 사

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택근무뿐만 아니라 화상 회의·강의까지 원격 서비스 체계가 갖춰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세계는 우리 방역시스템과 의료시스템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당시 잠시 어려움도 있었지만, 신종플루와 메르스를 겪으면서 구축한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세계가 부러워하고 배워야 하는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코로나19 대응행이 여름이면 종식될 것이라 기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코로나19 치사율은 4월 6일 이탈리아 12.3%, 스페인 9.5%, 이란 6.2%로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의 치사율이 4.1%, 우리나라가 1.8%인 것에 비하면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치사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것은 바이러스 자체의 특징도 없지 않겠지만, 각국 방역 및 보건 의료 체계가 위기 시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코로나19는 미국이나 유럽의 방역 및 보건 의료 체계가 매우 취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의 성숙한 연대의 힘과 국가의 방역·의료시스템이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에서는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치열하게 버텨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 코로나19 전염 위기 상황에서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과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이번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의 사망률은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높았던 것이 그 예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장애인시설과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처럼 재난 취약계층의 감염병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사실이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필수 서비스 제공 유지'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두 가지 상충된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생활시설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밀접 접촉이 있는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문에 '물리적 거리 두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서비스가 중단되면 기본적인 일상 생활 유지에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이 주 이용자이기 때문에,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에게 거주하는 시설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중증의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아 특단의 관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코로나19 유행 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2020. 2. 3.)',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2020. 2. 4.)',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 대응 지침(2020. 2. 21.)' 등 감염병의 시설 확산 방지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공통 지침이 몇 차례 배포되었다.

경제·사회·건강 취약계층이 거주·이용하는 시설이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와 지역사회 파장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수준의 단계적 지원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코호트 격리 시설과 종사자가 부족한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시설 종류 및 서비스 특성에 따른 감염병 관리 및 대응 매뉴얼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 감염 발생에서 종식까지의 단계별 상황, 상황별 수행 업무, 업무별 역할 분담에 대한 상세한 안내 지침이 주요 서비스 대상, 서비스 특성,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설 종류별로 별도로 배포되어야 한다.

사회복지현장도 이에 동참해 기관 소속 및 방역을 통해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일손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식재료나 기저귀와 같은 물품도 아예 시설 밖에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은 마스크나 손 소독제와 같은 방역물품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위급한 일이 아니고서는 입소자의 병원 방문도 가능한 미루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은 외부와 차단된 채 내부에서만 생활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집단 거주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방역망이 뚫릴 경우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의 무기한 휴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과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심리·정서적인 불안감을 표출하기도 하며,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증가한 어르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생활시설은 여러 명의 입소자가 좁은 공간에서 공동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가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종사자 감염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공백과 시설 내 응급 상황 발생에 유연하게 대응할 만큼 충분한 인력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행정 관리적 측면에서 생활시설에 대한 대응 조치가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지자체 행정력에 따른 대응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코호트 격리 시설, 종사자 부족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긴급지원책으로 추경 예산에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 과제가 포함·확대돼야 한다. 마스크, 손소독제, 방호복 등의 방역 물품은 생활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우선적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종사자 감염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공백과 시설 내 응급 상황 발생에 유연하게 대응할 만큼의 충분한 인력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3월 10일 '코로나19 대응 직능분야 TF'를 구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직능단체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방역대책을 상시 논의하여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사회복지직능단체에 배포했다. 또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지원을 통해 17개 사회복지직능단체 대상으로 16억 원 규모의 방역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등 정부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긴급히 요청한 이번 건의서에는 코호트 격리 시설에 대한 행정·재정적 우선 지원, 사회복지현장에 공적체계 조달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우선 배급, 중앙정부 차원의 저소득층 대상 '한국형 재난수당' 지급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겨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막기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 상황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상은 그야말로 지구촌이 되어 지리적으로 먼 나라와 가까운 나라의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 국민이 건강을 회복해야 비로소 우리의 건강한 일상이 회복할 수 있다. 경제 위기 역시 자국의 정책이나 한 두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세계가 하나 되어 서로 연대하고 상부상조해야 할 때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보여준 우리의 방역체계는 견고하고 시민의 식은 뛰어났다. 특히 당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은 국제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의 식과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하나로 뭉치지 않고는 사태를 결코 조기에 종식시킬 수 없다.

위기일수록 우리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은 빛을 발한다. 공동체 정신을 재차 강조하고 상기해야 할 시점이다.

(출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저널 5월호)



김대환

충북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무행정장

중도입국청소년? 아~ 다문화가정?

사실 불과 2년전까지 들도, 보도, 알지도 못했던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나는 국내 출생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과는 다르게 부모를 따라 한국에 들어오는 혹은 부모님 먼저 입국 후 부모의 경제활동 등 여건이 나아지면 고국을 떠나 입국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중도입국청소년들이다.

현 시대를 규정하는 중요한 현상 중 하나를 바로 국경을 초월한 이주이다. 이러한 이주의 시대적 흐름에 한국사회도 점차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증가와 함께 그들의 자녀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내 이웃들을 보라. 불과 몇 해 전의 이웃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은가?

중복 추수 통계정보에 의하면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청주시 내에만 13,577명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흥덕구 내 5,218명이 살고 있다고 한다. 이 중 본 기관의 주요 대상자인 중도입국 청소년은 그 특성상 국내출생다문화가정 혹은 이주배경청소년과는 다르게 정확한 통계청 자료나 참여 및 수요 조사가 어렵고, 정확하지 않아 앞서 조사된 발표에는 상당수의 중도입국청소년이 다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통계일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국내 상황 속에 새로운 이웃인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본국에서 태어나 그 나라의 정체성과 언어, 문화 등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한국에 오기 때문에 한국어는 물론이고 모든 문화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환경과 사회에 맞닥뜨림과 동시에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더해져 문화충격 및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이러한 아이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 정착하게 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속한 기관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2007년 이후 13년 넘게 충북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중도입국청소년과 관련하여 일을

을 진행한 배경 탓에 자연스럽게 총복 및 청주로 오는 많은 중도입국청소년 및 교육의 진입 전 자연스레 방문하는 기관이 되었다.

한 번은 인근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 오셔서 본 학교의 중도입국청소년을 본 학교에서 받아들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 한 적이 있다. 기존의 한국 학부모들이 회의를 통해 학교에 "100명 이상의 외국 학생들(다문화학생)은 절대 안됩니다!"라고 교장선생님께 염포를 넣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미 100명 이상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있었고 별개로 돌봄교실로 운영하는 반도 수용할 수 있는 정원에서 차서 새남학교에서 아이를 한 학기에서 1년 정도 한국어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청했던 적이 있다.

서울의 한 지역의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 중에 한 명의 한국 사람도 입학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가? 더 이상 먼 이야기 아니다.

필자는 이런 글을 쓸 수도, 쓸 만한 사람도 못된다.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일을 한 경력자도 아니다. 상황 탓에 이래저래 경험을 조금 해본 것 난 실무자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써달라고 하는 제안에 부끄럽지만 그래도 반응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이웃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 안에 중도입국청소년이 있습니다. 관심 한 스펀더 부탁드려요.' 한 번이라도 더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기를 바라는 측면, 두 번째는 조금 솔직한 이야기로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소정의 간식비를 제공한다는 제안에 후했다. 그리고 그 간식비로 분위기를 누리는 대신 우리 학생들에게 한국의 여름철 별미 '아르부스(수박) 하나 같이 먹어야지'라는 이유 단지 그 이유뿐이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이웃을 돕는 또 다른 선한 이웃들이 있다. 빵부터 시작해서 각종 식자재를 주시는 분들, 그리고 직접 연락을 주셔서 재능나눔과 자비량으로 관련 재료들까지 준비해주시는 선생님들. 그 외에도 더불어 사는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들이나 정부부처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주시는 분들, 우리의 이웃을 더 많은 이들에게 소개해주고 몇 달째 애쓰고 계시는 M방송식구들..

제일 고마운 우리 학생들. 나의 제한적이고 편협했던 사고의 틀을 깨우쳐 좀 더 가치있는 삶의 의미를 갖게 만들어준 장본인들. 바라기는 나도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이들도 나에게 더 의미 있는 참 벗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더불어 우리 사회!!안에서도 말이다. 그 시작은 관심일 것이며 더 나아가 거짓 없는 진정한 사랑일 것이다. 이 글을 통해 한 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웃의 개념 및 정의를 변형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사업 안내

법률상담서비스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복지"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알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입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제공대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

라혜영 변호사(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간 :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 043)238-0843 / 이메일 : hyra21@naver.com

사무실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상담실



법무부



충청북도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달의 법률상식



라혜영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저는 작년에 인근 공장(상시 5인 이상 근로)에 취업하게 되어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코로나19로 인해 공장 사정이 좋지 않다며 일주일에 2번만 근무하고, 임금 역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한 시급으로 감축될 거라는 사업주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두 달 전부터는 감축된 임금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A) 우선 일주일에 2번만 근무한다고 하여 임금 역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한 시급으로 감축된다는 사업주의 통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 이외의 경영장애사유까지 포함하여 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급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 불황 등 경영난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하는 날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우선 사업주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당해 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한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청구를 하여 민사상 소멸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과 체불임금

지역사회봉사단

스마일 봉사단, 환경 정화 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스마일봉사단(회장 최용순)은 지난 13일 괴산군 청천면 신월리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스마일봉사단은 2014년 충북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 천면 신월리에서 환경 정화 활동으로 위촉되어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최용순 회장은 "코로나19로 활동을 중단한지 3개월 만에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도 봉사에 임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 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sn@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복지정보 제공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2020가정폭력상담원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대상: 가정폭력이나 상담에 관심 있는 사람
접수기간: 2020.6.1.(월)~2020.8.10.(월)
교육기간: 2020.8.17.(월)~9.26.(토)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문의: 043-268-3007~8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함께 여는 자동문' 무료자동문설치 캠페인 공고
접수기간: 상시접수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려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접수하면 완료
신청장소: 매월 25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월 1곳 선정
문의: 1899-7081 또는 coad@coaddoor.com

[따뜻한동행]2020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 모집 안내
지원대상: 분야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량 있는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유형별 맞춤형 첨단보조기구 지원
접수기간: 2020.3.10.(화) ~ 7.10.(금)
신청방법: 따뜻한동행 홈페이지 공지사항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070-7118-1937)

[아산사회복지재단]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 'SOS 복지지원사업' 안내
대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부나 민간단체 지원이 신속히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
신청기간: 연중상시
신청방법: 아산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
문의: 02-3010-2566,2585

[희망나눔 주주연대]이로 · 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희귀 난치성 질환, 사고 등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재활치료 등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및 다자녀 가정의 성인 가장(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우편 신청
문의: 희망나눔 주주연대(02-3789-2555)

[밀알복지재단]2020년 국내장애 및 저소득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지원내용: 장애영유아 의료비, 장애아동 결연의료비, 장애아동 수술비, 안전장애인 수술비, 위기가정 지원
신청기간: 2020.3.1.(일) ~ 2020.12.31.(목)
신청방법: 신청서와 구비서류 밀알복지재단 법인메일로 상시접수
문의: 국내사업부 지원사업 담당자(070-7462-9135)

[사랑의열매&마중물]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참여자 & 사업체 모집
신청 및 모집기간: 2020.2.10.(월) ~ 2020.12.20.(일)
대상: - 훈련생: 만 15세 이상의 중증정신장애인으로 취업의사가 있는 당사자
- 사업체: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지원고용(훈련수당) 지원금(1인기준)
- 훈련생: 훈련준비금-40,000원 (6일 이상 출석 시 지원), 일비 1일 기준 17,000원
- 사업주: 훈련보조금-1일 19,340원
모집기간: 상시모집
지원고용 훈련기간: 사전훈련(최대6일), 현장훈련(4주~6주), 훈련시간(1일 4~8시간)
주관: 우리들정신건강센터
문의: 043) 267-5835, 285-5835
참고: http://www.woorideul.or.kr

[여송사회복지재단]함께독서' 도서 무료배포 안내
보급대상: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보급권수: 1기관 최대 2권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hildlovesky@hanmail.net)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도서 보급 공지사항- 신청양식 확인-이메일 발송
신청기간: 수시
배송관련: 택배비 기관 부담(착불 5,500원)
유의사항: 기존에 신청한 기관은 제외
문의: 여송사회복지재단 사무국 ☎ 02-553-3488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마우처 사업
지원내용: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이 있는 가구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0.5.27.(수) ~ 12.31.(목)까지
문의: 에너지마우처 콜센터(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자원 봉사자 모집

- ▶ 프로그램 업무보조
관리센터: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활동기간: 6.1~7.31
전화번호: 043-845-7505
▶ 일반찬 배달 봉사
관리센터: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6.1~7.31
전화번호: 043-835-4288
▶ 중증장애인 버킷리스트 봉사
관리센터: 늘푸른아동원
활동기간: 6.1~7.31
전화번호: 043-845-4544
▶ 이마용 봉사
관리센터: 소망원
활동기간: 6.1~7.31
전화번호: 043-253-7763

- ▶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관리센터: 청주내덕노인복지관
활동기간: 6.1~7.31
전화번호: 043-216-9811
▶ 초중고생 학습지도
관리센터: 그린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6.1~7.31
전화번호: 043-855-7878
▶ 저소득 가정 11 멘토링
관리센터: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기간: 6.1~7.31
전화번호: 043-857-5960
▶ 원예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6.1~7.31
전화번호: 043-284-0103

- ▶ 도서관 도서 정리
관리센터: 충청북도교육도서관
활동기간: 6.1~7.31
전화번호: 043-267-4590
▶ 문화예술 공연 봉사
관리센터: 수정노인의집
활동기간: 6.1~7.31
전화번호: 043-218-3436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복지/만/평

트라우마

이창신 www.bokmani.com



상처가 크면 후유증도 큰 법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